##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화해…한국사회 하나되길"

■ "온누리에 사랑과 은총을…" 각계 성탄 축하메시지

전국 성당·교회 미사 진행…정치권도 "국민 섬기겠다"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기쁨 아직도 생생" 성탄인사

'온누리에 사랑과 은총을….'

성탄절인 25일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성탄을 축 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진행됐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이날 오후 2시 원동성당에서 김희중(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의장) 대주교 집전으로 이주민 성탄 축제 미사를 봉헌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 을 축하했다.

김 대주교는 미사에서 "오늘은 예수님 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날"이라며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길 바 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을 만난 이 들은 모두 그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받 으며 기쁨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 갔다"며 "우리 자신들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고통과 슬픔 앞에서 상처 입 은 치료자로서 이웃과 함께 예수님 사랑 을 실천하도록 초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사랑의 집에서 옥 현진 총대리주교 집전으로 성탄대축일 미사가 봉헌 됐고, 성탄절 전날인 24일에 도 북동 공동주교좌성당과 임동 주교좌 성당에서 각각 김희중 대주교와 옥현진 총대리주교 주례로 성탄 밤 미사가 진행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국인들에게 성탄 인사를 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4일 오후 KBS를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세 상을 비춘 밝은 빛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 음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성탄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8월 한국 방문에서의 기쁨 과 감사함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서 "장엄했던 시복식 미사와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모든 순간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예수 탄생 대축일 미사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구절을 인용해 "하느님께서 상처받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한다"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희망과 위

로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광주·전남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는 이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예배를 올리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성안교회는 이날 오전 11시20분 김재영 담임목사 주재로 '성탄 축하 예 배'를 올렸다. 이날 예배에는 신도 1000 여 명이 참석했다.

김 담임목사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살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며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탄메시지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모든 슬픔과 눈물이 마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탄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화해의 길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통뿐만이아니라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모든교회와 기독 단체들이하나 되고 연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성탄절을 맞아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논평을 내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25일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가 열린 가운데 신자들이 구유에 경배하고 있다.

## 마지막 일몰은 가거도, 첫 일출은 향일암

일몰,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일출, 오전 7시36분 시작

다사다난했던 청마(靑馬)의 해, 한반도 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신안 가거도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5일 "올해 마지막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신안군 흑산면가거도, 육지의 경우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가될것"이라고 밝혔다.

가거도의 경우 오는 31일 오후 5시40분 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고 진도 세방낙조 는 오후 5시35분까지 일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 새해 첫날 일출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26분이며, 내륙에서는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으로 7시31분이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명소별 해돋이·해 넘이 시각'을 살펴보면 해돋이는 광주의 경우 무등산(장불재)가 오전 7시40분, 사 직공원이 오전 7시41분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전남의 경우 여수시 향일암과 고흥 외 나로도가 오전 7시36분으로 가장 이른 일 출이 예상되며, 고흥군 남열해수욕장 7시 37분, 완도 일출공원 7시39분, 해남 땅끝 마을 7시40분으로 대부분 지역이 오전 7 시36분~42분 사이에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다.

일출 시간은 해발 0m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보다일출 시간이 당겨진다. 가령 해발 100m에서의 일출 시각은 발표시간에 비해 2분 가량 빠르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과 새해 첫날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눈 또 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백양사·노양도…양 지명 전남 '최다'

총 15곳…내장산, 산세가 양 창자와 비슷하다는데서 유래

'노양도', '백양사', '내장산'… 국토지리정보원은 '양의 해'인 을미년 (乙未年) 새해를 앞두고 양과 관련된 지명 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50만여개 지명 중 40개가 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25일 밝혔다.

양과 관련된 지명 40개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가 전남에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이 8개, 경기·경북이 5개, 전북이 3개 순이었다. 지명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섬(7개), 산(6

개), 고개(2개) 등이었다. 양 관련 지명 중에는 '양도'란 명칭이 전국에 6개로 가장 많았는데 완도와 해남 에 이런 이름의 섬이 있다.

신안군 안좌면 박지리의 '노양도'는 섬 의 모양이 늙은 양의 모습과 같다고 해 붙 여진 이름이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성・

정읍·순창의 내장산은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과 산세가 양의 창자와 비슷하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됐다.

장성 백암산 백양사에는 전설이 있다. 조선 선조 때 '환양'이란 고승이 불경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흰 양이 경 읽는 소리 를 듣고 암자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귀 기 울여 듣다 돌아가곤 했다. 몇 달 뒤 스님 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독경소리에 깨달 음을 얻어 사람의 몸으로 환생한다'며 절 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대체로 남부 지 방과 섬에 양 관련 지명이 많은 것은 예부 터 섬처럼 고립된 지역에 양을 방목해 키 운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십이지 가운데 양 관련 지 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양을 기르는 게 토착화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정규·비정규직 월급차 4.2배

이자스민 의원 최근 5년 임금 분석…2010년 이후 다시 격차

최근 5년 사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이 최대 4.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 사됐다.

25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09~2013년 임금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300인이상 기업의 상용직 근로자(정규직)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비정규직) 간의 월평균임금격차가 3.5~4.2배에 달하는 것으로분석됐다.

3.5배 차이가 난 2011년에 300인 이상 기업서 일하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427만3000원, 120만 8000원이었다. 4.2배 격차를 보인 2010년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429만1000원, 10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격차가 줄어들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 됐다. 상용·임시일용직 간 연도별 임금 격차는 2009년 3.8배, 2010년 4.2배, 2011 년 3.5배, 2012년 3.7배, 2013년 3.8배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5~299인 기업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임금은 2.1~2.5배 차이 가 났다. 최대 격차를 보인 2010년에 상용 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269만 9000원, 105만9000원이었다.

최근 5년간의 임금상승액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에 차이가 났다. 300인 이 상 기업 상용직의 임금 상승액은 64만 9000원이었으나 임시일용직은 19만원에 그쳤다. 5~299인 기업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상승액은 각각 38만 1000원, 31만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차 이가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